

이 자료는 SIPC(Shell International Petroleum Company) 發行의 Shell Briefing Service에서 번역한 것으로써 「주간 석유뉴스」(유개공)에서 전제한 것이다.
 <편집자 주>

세계 石油정세와 OPEC

● 세계의 석유정세

지난 70년까지의 20년간은 석유가 저렴한 에너지로서 主宗에너지源이 됨으로써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룬 시기였다. 이 기간중 인플레이와 景氣후퇴가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었으나, 경기후퇴시에도 경제성장률은 상당히 높게 유지되었다.

73년 10월의 中東戰爭(第1次석유위기)후 OPEC 회원국 일부의 산유량 감축등으로 인해 油價가 배럴당 3달러에서 약 10달러로 상승함으로써 대량의 자금이 石油소비국으로부터 산유국으로 이전되었다.

이와같은 油價폭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된데다가 일부 국가의 정부가 인플레이 억제조치를 취함으로써 70년대 중반에는 경기가 후퇴하였다.

일부 개발도상국도 경제정책의 조정을 실시했으나, 경제성장이 가장 떨어진 것은 주로 OPEC산유국들이었다.

산유국으로 흘러들어온 자금은 그후 서서히 石油소비국으로 환류하기 시작함으로써 세계경제는 경기후퇴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은 다시 상승했고,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증가되었으며, 이는 또한 油價再上昇의 요인이 되었다.

그후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인해 石油수출량은 감소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된 石油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78년에 평균 배럴당 13달러이었던 油價가 79년에는 30달러로 폭등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자, 거의 모든 石油소비국정부는 인플레이억제를 위해 디플레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가져왔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과 산업구조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남에 따라, 에너지수요의 감소폭이 어느 정도 정체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石油수요의 감소는 두드러

저서 油價는 80년대 전반을 통해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84년 및 85년에 세계경제는 경기후퇴로부터 벗어났으나, 石油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油價는 하락세를 보였다.

85년 12월에 OPEC가 시장점유를 확대를 추구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油價는 급락하였다.

● 에너지 수요

73~85년간의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5%선에서 1.5%로 감소했다. 이는 73년 이후 두차례에 걸친 油價의 대폭 인상의 영향등으로, 세계에너지시장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에너지 원단위(國內總生産 1單位를 生産하는데 必要한 에너지量)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의 주요 소비국인 OECD 제국의 경제가 에너지 多消費型重工業으로부터 低消費型 경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감소되었다. 85년의 에너지 원단위는 73년에 비해 15%이상이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石油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서 85년의 石油의존도는 73년에 비해 30%이상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79년의 油價급등으로 각국이 脫石油化를 강력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석유의 공급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국제수지면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石油소비국정부는 石油依存度を 감소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각국은 高油價로 인해 石炭이나 가스 등 石油代替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70년대에 증가세를 지속하던 石油수요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감소되었다.

燃料상호간의 경합이 심한 가정·산업·발전부문에서는 특히 石油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퇴되었다. 그러나 수송부문에서는 石油가 여전히 主宗을 이루어, 이 부문에서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은 石油로 충당되었다.

79년 이후 他 용도에서는 石油소비량이 약 650萬b/d나 감소한데 비해 수송용연료로서의 石油소비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石油製品수요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에 치중되어 輕質製品의 수요비율이 증대하였다.

73년 당시는 세계(소련, 東유럽, 中共 제외)의 石油製品 수요중에서 수송용연료의 비율은 40%에 불과했으나, 85년

에는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油價수요의 감소는 OECD제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세계에너지의 약 4분의3은 여전히 北美, 西유럽 및 日本에서 소비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石油수요는 73년에 800萬b/d였으나, 79년에 1,100萬b/d, 그리고 85년에는 1,200萬b/d로 증가하였다.

● 石油의 생산

73~85년간 세계의 石油생산량(原油 및 NGL포함)은 5,800萬~6,600萬b/d 범위에서 변동하였다.

산유량은 79년 피크에 달했는데, 당시 OPEC제국의 산유량은 세계전체산유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후 油價상승에 따라 세계의 石油생산에 큰 구조변화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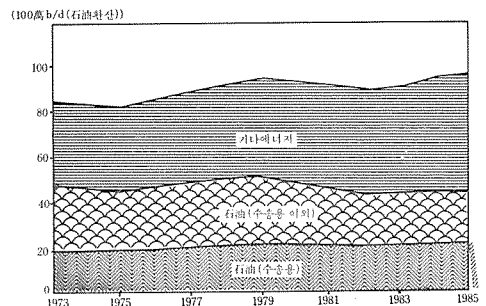
OPEC와 산유량은 3,200萬b/d에서 1,700萬b/d로 감소된 반면에, 非OPEC산유국의 산유량은 3,400萬b/d에서 4,000萬b/d로 증가하였다.

OPEC 石油에 대한 수요가 감소된 것은, OPEC산유국이 80/81년에 설정한 公式油價수준, 또는 이에 가까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OPEC의 생산량 상한은 82년 3월에 1,750萬b/d로 84년 10월에는 1,600萬b/d로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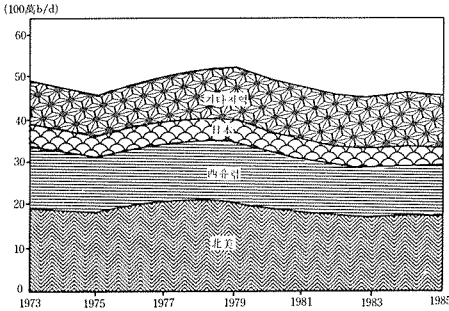
그러나 85년 12월에 OPEC는 생산제한에 의해 油價수준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 세계石油市場에서 OPEC의 타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油價는 크게 하락하게 되었다.

〈그림 - 1〉 세계에너지 需要 추이



* 蘇聯, 東區, 中共 제외

〈그림 - 2〉 지역별 石油消費추이



* 蘇聯, 東區, 中共제외

각국은 수입石油의 의존도를 줄이고, 自國產石油에 의존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油價상승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石油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73년 이후 中共, 멕시코 및 英國은 산유량이 각각 100萬 b/d이상의 산유국으로 등장했다. 이밖에 非OPEC 산유국인 美國, 소련, 캐나다를 합치면 85년 非OPEC 산유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이집트, 노르웨이, 濠洲, 인도, 브라질, 오만 등 6개국은 각각 50萬~100萬b/d의 산유국이 되어, 이들 6개국은 非OPEC 산유량의 약 10%를 생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인 약 400萬b/d는 여타 약 40개국에서 생산되었다.

OPEC의 産油量 추이

(단위 : 1,000b/d)

	1973	1979	1985
사우디아라비아	7,690	9,830	3,730
이 란	5,900	3,200	2,250
베네수엘라	3,460	2,430	1,740
나이지리아	2,050	2,310	1,510
이라크	2,020	3,490	1,430
아랍에미리트	1,530	1,840	1,350
인도네시아	1,340	1,670	1,350
리비아	2,220	2,120	1,100
쿠웨이트	3,090	2,630	1,070
알제리	1,130	1,230	1,010
카타르	570	510	340
에콰도르	210	210	280
가봉	150	200	150
計	31,360	31,670	17,310

非OPEC 산유국의 産油量 추이

(단위 : 1,000b/d)

	1973	1979	1985
소 련	8,700	12,110	12,000
美 國	10,920	10,200	10,530
멕시코	620	1,620	3,010
英 國	10	1,600	2,700
中 共	1,100	2,130	2,490
캐나다	2,170	1,820	1,790
이집트	170	530	910
노르웨이	30	430	850
濠洲	420	500	650
인도	150	270	600
브라질	170	170	580
오만	290	300	500
아르헨티나	430	480	460
말레이시아	90	270	440
루마니아	300	230	230
케루	80	210	200
트리니다드토바고	170	210	190
콜롬비아	190	130	180
카메룬	-	30	180
부르네이	220	260	160
其他	1,050	880	1,890
計	27,280	34,380	40,450

현재 세계의 石油생산능력은 수요보다 약 1,000萬b/d 상회하고 있는데, 그 잉여능력의 대부분은 OPEC 산유국에서 보유하고 있다.

● 石油의 국제거래

73~79년 石油의 국제거래량은 2,900萬b/d에서 3,300萬b/d 사이였으나, 80년 이후는 계속 줄어들어 85년에는 2,200萬b/d까지 감소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石油수요감소 및 非OPEC 산유국의 石油수입감소 등에 기인되고 있다.

73년 OPEC 산유국의 순수출량은 3,000萬b/d였으나, 79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85년에는 1,400萬b/d까지 감소되었다. 모든 OPEC 산유국이 영향을 받았는데, 82년 이후 OPEC 수출감소량의 대부분은 對 OPEC 수요감소에 대한 생산조정자(Swing Producer)의 역할을 맡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 감소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OPEC산유량의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은 크게 감소, 81년에는 OPEC수출량의 거의 절반에 상당하는 960萬b/d였던 것이 85년에는 260萬b/d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石油수출에 의한 수입도 81년의 1,130億달러를 피크로 85년엔 약 300億달러까지 감소하였다.

반대로 非OPEC산유국의 순수출량은 계속 늘어 73년에

200萬b/d였던 것이 85년에는 거의 900萬b/d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동안에 몇몇 非OPEC제국이 石油수출국으로 대두하였다. 85년 非OPEC산유국의 石油수출은 다음과 같다.

油田의 잠재적인 생산능력 및 개발타이밍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외의 매장량이 더 발견되지 않는한, 비OPEC산유국의 생산량이 더욱 증가될 전망은 희박하다.

非OPEC산유국의 석유수출현황 ('85)

(단위 : 100萬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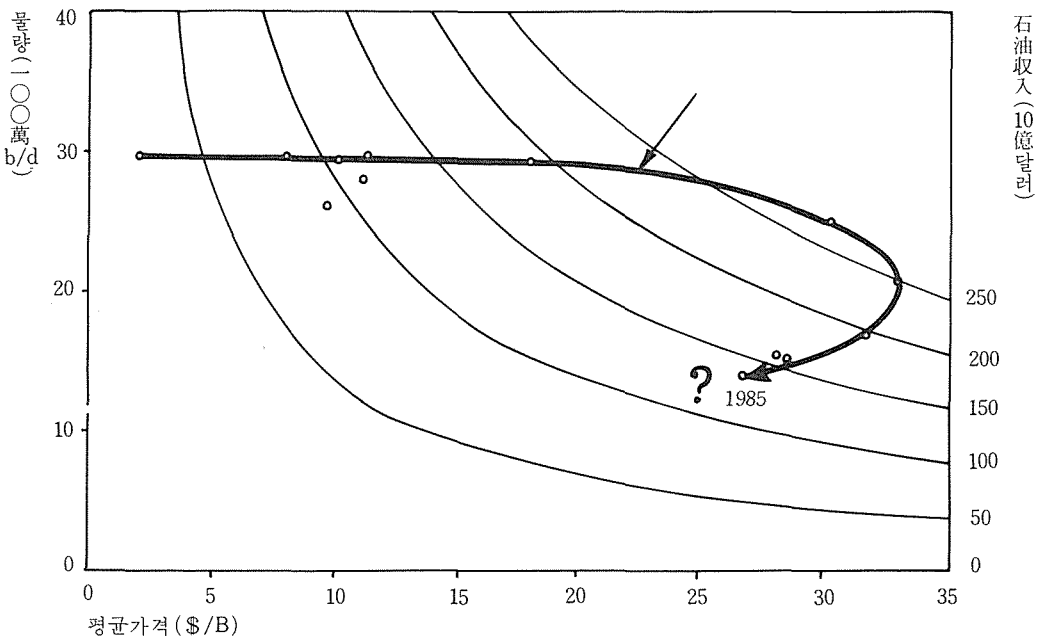
	純輸出量	非OPEC산유국 전체 純輸出量에서 차지하는 비중 (%)
멕시코, 英國, 노르웨이	3.3	38
蘇聯, 東유럽, 中共	2.6	31
브루나이, 이집트, 말레이시아, 오만	1.4	1.6
기타(16개국)	1.3	15
합	8.6	100

● OPEC의 장래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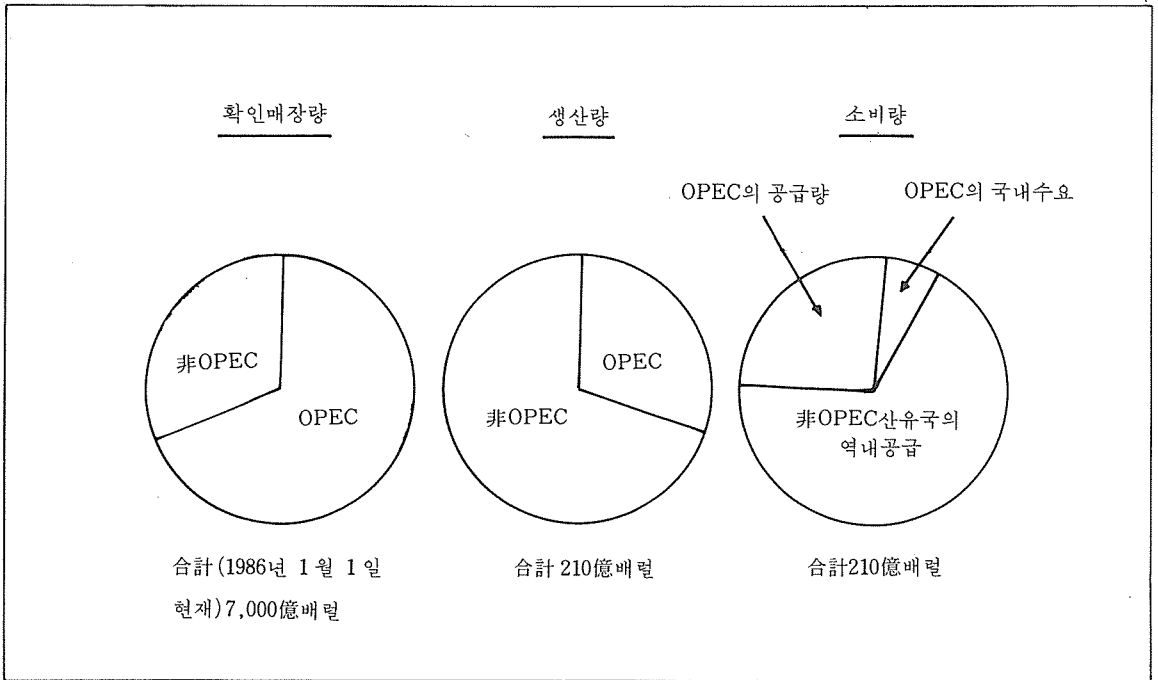
OPEC산유국에 있어서 石油收入은 전체 수출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70년대에는 油價가 상승하고 수출량도 거의 유지되었기 때문에 OPEC의 石油收入은 73년에 230億달러였던 것이 80년 피크時에는 2,750億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후 油價하락 및 수출량감소로 인해 85년 石油收入은 약 1,340億달러로 줄어들었다.

OPEC 전체의 石油收入을 제외한 경상수지는 반대경향을 나타냈다. 그것은 소비지출이 증가한데다가 수입에 의존하는 수많은 개발프로젝트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石油收入을 포함한 전체 경상수지는 80년이래 흑자

〈그림 - 3〉 OPEC의 價格/물량관계



〈그림 - 4〉 세계의 石油수급현황 (1985)



가 감소되고, 82년이후는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에따라 OPEC은 산유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입감소를 저지하려고 했다. 처음에 이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했으나, 85년이 되자 石油수요의 감퇴, 非OPEC산유국産 石油의 증가, OPEC산유국간의 의견 및 이해의 불일치등 영향으로 인해 이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점차 확실해졌다.

〈그림-3〉은 가격과 물량의 여러가지 조합을 상정한 石油收入의 곡선을 그리고, 여기에 73년이래의 OPEC자료를 첨가함으로써 OPEC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와 油價급락의 영향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배럴당 15달러 가격으로 1,500億달러의 石油收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OPEC은 85년의 수출량 1,400萬 b/d를 거의 2배로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종합적으로 油價하락의 영향을 헤아린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低價格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 또한 그것이 他에너지源에 어떤 영향을 주

었고, 소비국 및 산유국 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등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油價상승 및 OPEC의 지위강화는 石油의 수요증가에 따르게 될 것이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OPEC가 지니고 있는 막대한 石油·가스資源이 큰 힘이 될 것이다.

OPEC은 세계 原油확인매장량의 약 3분의2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분의3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등 4개국에 존재한다. 이에 비해 石油의 주요 소비지역인 北美, 西유럽제국 및 日本의 확인매장량은 모두 합쳐도 세계매장량의 약 7%에 불과하다.

지역적으로 보면, 石油의 생산과 소비구조는 原油매장량의 지역적 분포와 전혀 달라서 85년 OPEC의 石油공급량은 세계石油 공급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기적 시점에 입각한 OPEC의 장래는, 非OPEC 산유국의 原油매장량이 대폭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한,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